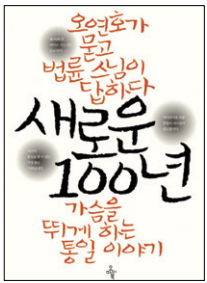


남북통일은 미래 비전적으로 접근해야



새로운 100년
법륜·오연호 지음
오마이북
1만5천원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일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무척 가슴이 벅차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만들고자 권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도 핵심적인 일은 우리민족의 가슴 한복판을 뚫어내 주는 일입니다. 바윗덩이를 들어내고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권, 평화, 통일뿐 아니라 ‘죽문죽살’로 유명한 법륜 스님과 2000년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오마이뉴스’를 창간했던 오연호 대표가 2011년 3개월 동안 나는 대담을 정리한 책이다. 대담의 주제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남북통일’이다. ‘오연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다’,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 이야기’라는 두 개의 부제가 붙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통일이라는 용어에 무척 식상해 있어요. 아주 진부한 용어로 들리죠. 더 이상 통일이 가슴을 뜨끈뜨끈하게 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이 대담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됩니다.” 책(대담)은 대한민국에서의 ‘통일’이란 단어의 신선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60년이란 세월이 지난 단어의 신선도는 위에서 말한 대로다. 제조일자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의한 분단이 제조해낸 ‘통일’에는 제조일자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유통기한이 없다. 하지만 6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스님의 말대로 ‘통일’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처럼 식상하고 진부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TV에서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왜 그런 감정이 통일 운동으로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통일을 누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그렇다 통일이란 문제는 이제 그것이 국민 모두가 공히 인식해야 하는 ‘문제’인지 조차 불분명해졌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한 언론인은 왜 스님에게 ‘통일’을 물었을까. “법륜 스님의 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는 남과 북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세심히 살펴보고 굶주린 북한 동포를 도우며 통일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즐기게 합니다. 통일을 함께 추진할 ‘통일의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통일’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



〈새로운 100년〉의 대담자인 법륜 스님(사진 왼쪽)과 오연호 대표가 5월 10일 프란치스코 교목회관 내 북카페 ‘산다미아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법륜 스님의 ‘통일’ 주제 즉설 2004년에 평화재단출범 시켜 통일은 민주화 완성의 과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님은 1998년부터 준비해 2004년에 공식적으로 평화재단을 출범시켰다. 이 단체가 준비하는 것이 ‘통일’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통일이 참 멀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시험공부 하라 취직 준비 하라 바쁘고 30, 40대 직장인들은 출산율 1.14명이 보여주듯이 아이 돌을 낳아 기르느라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통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현실

입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할 현안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미래를 생각해야 할까요? 미래가 곧 현재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은 아니잖아요. 10년이나 20년 후면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텐데, 그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죠.” 스님은 남북이 분단된 채로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한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자유가 유지될 수 없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에 대해 제시한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시각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봐요. 과거 청산적 통일론이 아닌 미래 비

전적 통일론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1세대 통일론은 분단이 됐으니 일단 분단을 청산하자라는 거죠. 비용이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과거를 청산하자는 겁니다. 반면 미래 비전적 통일론은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면 통일을 해야 하고, 통일 해야만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청산적 통일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 청산적 통일이 늙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느냐의 문제라면, 미래 비전적 통일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책은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는데 통일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묻고 답한다. 민족의 문제에서, 종교의 문제에서, 역사의 문제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등등 죽문죽살이 쏟아진다. 그리고 ‘통일’은 다시 새롭게 부각된다. 다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스님, 왜 통일을 해야 합니까?” “통일은 우리의 독립, 성장, 민주화를 완성해주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과거의 100년을 청산하고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지요. 이 정도면 인생을 한 번 바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통일이라는 재미있는 일을 때마침 우리가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 힘이 들고 기가 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다시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이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지혜롭게 휴식하는 방법은?

행복한 마음 휴식

석지현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만병의 근원은 이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육체 병을 일으키는 질환의 뿌리인 것이다.

스트레스라는 질환의 근원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휴식이다. 휴식은 몸의 휴식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의 온전한 휴식을 말한다. 출간된 〈행복한 마음의 휴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인도의 오소 라즈니쉬의 〈명상비법〉을 소개했던 저자가 지치고 힘겨운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이 책은 명상에 관한 고전적인 책으로, 불교, 힌두교, 자이노교, 시크교, 이슬람 신비주의(수피) 명상도 모두 이 책으로부터 나왔다.

“감각이 그 대상을 만나면, 거기 그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집착이다. 그 다음 그 대상을 소유하려고 한다. 이것이 욕망이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될 수 없을 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극심한 투쟁력이 생긴다. 이것이 분노다.”

책은 명진 근육을 풀어주듯 딱딱하게 굳어버린 감정과 영혼을 위한 명상들로 이어진다. 명상들은 생각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생각은 스트레스가 아닌 휴식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들이다. ‘그렇게 왔

다가 그렇게 간다’, ‘고뇌의 시작’, ‘내 심장의 맥박’ 등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될 수 있다. 글자와 글자,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쉬고 싶은 만큼 편안하게 될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삶은 ‘고통’이다.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게 된다. ‘살’은 소리만 다르지 ‘고통과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현대는 자신이 한계를 깨트리고 넘어서고 극복하겠다는 욕구가 강한 사회다. 욕구가 강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저자는 별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니 잠시 멈추어 쉬면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라고 권한다. 삶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쉬는 온전한 휴식일.

박재원 기자

생로병사 인간의 한계 직시

죽음 공부

박영호 지음 | 교양인 펴냄 | 2만2천원



다석 사상으로 통찰하는 동서고금의 죽음 철학. 저자는 우리말과 글로써 철학을 한 최초의 사상가였으며, 불교, 노장 사상, 공자와 맹자 그리고 기독교까지 두루 탐구하고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사상 체계를 세운 다석 류영모(1890~1981)의 사상을 바탕으로 죽음의 철학을 살피는 책이다.

인류의 영원한 의문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 책에서는 석가 소

크라테스 예수 노자로부터 키르케고르 파스칼 스피노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이르기까지, 생로병사와 본능에 갇힌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죽음의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었던 이들이 남긴 귀한 조인이 담겨 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 한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일까? 죽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한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일까? 죽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음 공부〉는 언젠가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박재원 기자

공(空)으로 풀어낸 반야심경

알기쉬운 반야심경 강설

법정(진언종)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반야심경”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대중적인 경전이다. 모든 의식과 행사에서 독송될 뿐만 아니라, 불교의 정수를 압축해 놓은 진수이기 때문이다. 270자의 짧은 글 속에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부경전을 농축해 담고 있다. 또한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폭은 대해와 같다. 그래서일까?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서만도 수백 종에 이른다. 저자는 여기에 또 한 권의 해설서를 더하면서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책은 시종일관 ‘공’과 ‘비움’의 이치를 설한다. 반야심경의 모든 가르침은 공으로 회통된다. ‘공’이 핵심 사상인 반야심경을 이야기하면서 공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단순히 사상적, 이론적, 교학적 풀이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실천, 그것도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저자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또한 저자는 반야심경 한 자 한 자, 개념 하나 하나, 꼼꼼하게 그 뜻과 의미를 새기면서 독자들을 친절하게 이끌어준다. 그리고 친절한 해설은 불교의 기본적 가르침, 기본 교리들을 전하는 불교 안내서 역할을 한다. 저자는 이런 해설을 통해 중생들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일러준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반야의 지혜에 눈뜨게 하여 중생사피안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나침반이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생앤파크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탄허록	탄허	휴
6	경허	일지	민족사
7	걱정 말고 기도하라	법안	은행나무
8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불광출판사
9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글씨미디어
10	깨달음으로 가는 위빠사나 명상	해공	근원출판

※불서종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턱나쁜 스님과 헤민 스님이 강력 추천한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타라 블랙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456면
19,800원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2004년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갈망을 풀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뜻한 기분과 굳센 마음으로 관용과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턱나쁜 스님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 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헤민 스님

반야심경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c www.facebook.com/bulkwang